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0호 【루계 제25038호】 주체10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단숨에의 기상으로 총돌격속도를 최대로 높이자

당창건 일흔돐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온 나라는 창조와 혁신의 불도가니가 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과감히 돌격해나가는 총진군대오의 앞장에는 단숨에의 기상으로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군대가 있다.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체현하고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높이 발휘하고있는 인민군대의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공격기질, 대중적영웅주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단숨에의 기상이 나래치고 조선속도가 창조되며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는 거창한 창조와 위대한 변혁의 시대입니다.》

단숨에! 이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기질이며 불가능을 모르는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이다.

지금 인민군군인들이 진입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대비약적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부터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장에 이르기까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들끓는 격전장들에서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내달리며 억세게 투쟁하는 우리 군대의 완강한 공격속도는 그야말로 일행천리이고 단숨에이다.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철석의 신념이 새겨져있고 항일의 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박치고있으며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순결한 애국의 량심이 어려있다.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들었다놓으며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수준에서 희한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억세게 투쟁해나갈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으며 누구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다.

단숨에의 기상,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인민군대의 완강한 공격정신이다.

명령결사관철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의 철칙으로,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 수령의 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이 있고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것이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당중앙이 세계앞에, 인민들앞에 선포한 시간은 순간도 드릴수 없다는것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마식령의 군인건설자들을 잊지 않고있다. 자연이 이기느냐, 인간이 이기느냐 하는 관가리격전장에서 우리 병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피와 땀으로 스키주로를 닦으며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였다. 지금 인민군대는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의 보고를 올릴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단숨에의 기상으로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인민군대의 투철한 명령결사관철의 정신은 당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옹호하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보위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단숨에의 기상, 이것은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전격적으로 강행돌파하는 인민군대의 폭풍기질이다.

인민군대에서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중도반단이란 말자체를 모르며 침체와 답보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전투명령을 받으면 인민군장병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단숨에 공격진지를 차지하고 맡겨진 과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으며 지휘관들의 임무료해, 정황판단, 결심채택이 전투현장에서 즉시에 진행되고있다. 천길 땅속이든, 험산준령이든, 날바다이든 인민군군인들의 발자취가 새겨지는 곳마다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화가 복으로 전환되고있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이 맥박치는 시대의 기념비들이 솟아나고있다.

우리 당이 펼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의 화살표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변침을 모르는 결사의 돌격침로이다. 혁명의 주력군, 핵심부대가 무적필승의 기상으로 최악의 역경들을 강행돌파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힘차게 돌고있다.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은 곧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억센 기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나가며 공격 또 공격하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전투적기질로 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단숨에의 기상, 이것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창조물로 당과 인민앞에 애국의 량심을 검증받는 인민군대의 창조본때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받드는 길에서 자그마한 드림도 모른다. 우리 군대의 절대적기준은 오직 하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만족해하시는가,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이것뿐이다. 인민군대가 해놓는 일은 두리뭉실한것이 없고 미흡한 점이 없다. 최상의 수준에서 최고의 질을 보장하고 당에 보고드리는것이 인민군대의 만점짜리 일본새이다. 시작도 패기있게 떼고 마무리도 모가 나게 하며 모든 일을 멜시있게 완성해놓는 인민군대의 일솜씨에서 인민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과 군인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것이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투철한 애국관으로, 투쟁목표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건설물 하나를 일떠세워도 후대들이 세세년년 덕을 보게 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아야 한다.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과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지금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전투장마다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선견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전위대오가 바로 인민군대이다. 인민군군인들이 단숨에의 기상으로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김정일애국주의의 결정체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창조본때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보람찬 대진군이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여기고 힘있게 내달려 뜻깊은 10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인민군군인들의 무한한 충정의 세계를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인민군대가 발휘하는 정신력의 근본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적실천으로 받들어나가려는 불같은 충정, 이것이 우리모두의 투쟁정신으로 되여야 한다.

오늘의 총돌격전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투쟁이다. 누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언제나 명령결사관철로 심장을 끓이는 인민군군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에 늘 자기를 비추어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참된 전우, 진정한 동지가 되여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에 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용감무쌍하고 지칠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우리는 백절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공격정신의 체현자들인 인민군군인들의 모범을 따라 최대의 마력을 내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투쟁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며 립체전, 전격전으로 전투목표들을 끝까지 점령해나가야 한다.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 힘을 넣어 경제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이것이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에 새겨져있는 투쟁원칙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여 우리 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하던 패배주의자들에게 황금해의 새 력사창조로 타격을 준 인민군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에 새기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영웅적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돌격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는데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당조직들은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참신하고 박력있는 정치사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단숨에의 기상으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영웅적위훈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인민군대의 언어가 아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우리 군대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새겨져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뼈속깊이 새기고 단숨에의 기상으로 돌진하는 인민군대지휘관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여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빈틈없는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당이 준 전투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으로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벨트콘베아공사 빠른 속도로 추진

2.8직동청년탄광에서

2.8직동청년탄광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10갱과 11갱구역들에서 심부가 깊어지는데 맞게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기 위한 벨트콘베아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고있다.

석탄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운반능력을 높여야 하겠다고 결심한 탄광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이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로 하였다.

탄광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지를 구체적으로 밟아보면서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10갱구역의 어느 한 위치에 벨트콘베아를 놓으면 10갱과 11갱의 석탄운반능력이 훨씬 높아지고 생산량을 종전보다 2배로 끌어올릴수 있다는 확고한 담보를 찾아쥐게 되였다.

벨트콘베아공사는 로력과 설비, 자재 등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 하는 헐치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현행 석탄생산을 힘있게 내밀면서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공사를 무조건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일군들은 강력한 굴진 및 설비조립력량을 뭇고 압축기, 착암기, 공기배관을 비롯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2월부터 벨트콘베아공사는 중앙과 도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힘있게 벌어졌다.

벨트콘베아공사가 완공되면 석탄운반능력이 종전에 비하여 훨씬 높아지게 된다.

탄광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벨트콘베아공사를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완공하기 위한 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드세게 들이대였다.

중앙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은 수시로 전투현장에 내려가 실태를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탄광의 일군들은 설비, 부속품, 동발나무를 앞질러가며 마련하면서 벨트콘베아공사준비를 힘있게 내밀었다. 이와 함께 암질조건에 맞는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굴진전투장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굴진에 동원된 8.28청년돌격대, 김영택굴진소대, 김성만굴진소대 굴진공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였다. 이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여나갔다.

굴진공들은 매일 굴진속도를 1.2배로 높여 현재 마감단계에서 굴진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설비조립을 맡은 설비과, 벨트설비설치 및 이설작업반 전투원들은 벨트콘베아공사에 필요한 설비가 마련되는 차제로 설비조립전투를 다그쳐 끝낼수 있게 그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벨트콘베아공사에 필요한 설비, 부속품생산을 맡은 순천탄광기계공장과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탄부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빠른 시일에 맡은 과제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탄광일군들과 탄부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벨트콘베아공사를 끝낼 열의에 넘쳐 투쟁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본사기자 찍음

수십개 공장, 기업소들 큰물피해를 가시고 생산 시작

라선시 선봉지구에서

라선시 피해복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큰물피해를 입었던 선봉지구의 수십개 공장, 기업소가 빠른 시일에 피해를 가시고 생산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피해복구련합지휘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과 함께 선봉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거듭 베풀어지는 당의 은정깊은 조치가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선봉지구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라선시당위원회에서는 선봉지구에서 공장, 기업소일군들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였다. 그리고 선전선동력량을 동원하여 큰물피해흔적을 하루빨리 가시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하여 시의 일군들은 현지에서 시급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투지휘를 짜고들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일군들은 생산자대중과 함께 공장구내에 쌓인 감탕과 퇴적물을 쳐내며 기술자, 로동자들과 집체적지혜를 합쳐 설비들을 가동시키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선봉지구의 거의 모든 공장들에서 피해를 가시고 생산에 들어가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라선종합식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이 큰물피해를 입은 즉시 한사람같이 떨쳐나 설비들에 대한 보수전투를 벌려 24시간만에 기초식품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기초식품생산을 내밀면서 자체의 힘으로 8일동안에 8 000여㎥의 감탕을 쳐내고 공장구내의 꽃나무심기와 잔디밭조성에 힘을 넣어 큰물피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였다.

라선북합미생물비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0여일만에 피해흔적을 가시고 수십대의 설비들과 륜전기재들의 가동을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공장구내에 경쟁도표판을 내붙이고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 열의에 넘쳐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라선제약공장, 선봉콩우유가공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빠른 시일에 큰물피해흔적을 가시고 생산에 들어갔다.

특히 선봉피복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녀성들의 힘으로 변압기와 재봉기를 비롯한 수십대에 달하는 설비들을 10일동안에 원상복구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큰물피해를 가시고 생산에 들어간 선봉지구의 수십개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거듭되는 당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시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6일까지 종이공장, 산과일가공공장, 목재가구공장, 독공장, 식료공장, 화학공장, 피복공장을 비롯한 우시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지난해보다 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맡겨진 계획을 수행하도록 전기와 원료, 자재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에서는 우시1호발전소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게 전기생산을 정상화하게 하는것과 함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장공장, 식료공장들에 올해 기초식품과 당과류생산에 요구되는 원료전량을 보장해주었으며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종이공장, 목재가구공장들에 종이제품과 가구생산을 위한 수백㎥의 목재도 보장해주었다.

우시군의 지방공업공장들과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건 일흔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질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일념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종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종이생산계획을 매월 넘쳐 수행하여 군적으로 제일먼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식료공장, 산과일가공공장, 독공장, 화학공장, 목재가구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자기들앞에 맡겨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특파기자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참모부에서는 매월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에로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이 직접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갔다.

혁신의 불길은 사출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직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기술개건에서 찾고 사출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을 새롭게 개조하여 바께쯔 등 여러가지 수지제품생산을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료직장에서는 원료의 선별과 분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한편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공장앞에 맡겨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지관작업반과 박막작업반에서도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규격의 수지관들과 박막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맡겨진 계획을 매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질좋은 수지일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부룬디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우리 두 나라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각하와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을 다시금 굳게 확언합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귀국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베에르 은쿠룬지자
2015년 9월 6일 부줌부라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방글라데슈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적인 발전과 안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적인 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각하의 령도밑에 현존하는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진보,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엠디. 아브둘 하미드
2015년 9월 7일 다 카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2015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각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탄자니아련합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사이에 존재하는 형제적이며 력사적인 관계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현존하는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앞으로 보다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념원으로부터 당신과 그리고 귀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해나갈 우리 정부의 립장과 희망을 재확언하는바입니다.
각하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바랍니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테
2015년 9월 7일 다르 에스 살람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을 맞는 경사스러운 계기에 각하께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호상협조가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 눈 후 쎄 인
2015년 9월 7일 이슬라마바드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인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귀국인민에게 아제르바이쟌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명절에 즈음하여 각하께서 건강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아제르바이쟌공화국 대통령
일 함 알 리 예 브
2015년 9월 7일 바 꾸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2015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나자신과 우간다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각하와 귀국정부, 인민과의 훌륭한 쌍무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지속적인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2015년 9월 7일 캄 팔 라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제1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기네정부와 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륭성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를 다방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나의 의지를 각하께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조선인민에게 행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제1위원장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네공화국 대통령
알 파 꼰 데
2015년 9월 8일 꼬나크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2015년 9월 9일 귀국의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귀국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까메룬공화국 대통령
뽈 비 야
2015년 9월 8일 야운데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그리스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공화국 대통령
쁘로꼬삐스 빠블로뿔로스
2015년 9월 9일 아테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을 맞이하는 행복한 기회에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네팔대통령
박사 람 바란 야다브
2015년 9월 9일 까뜨만두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친선적인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계기에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두 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는 진실한 축원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과 귀국인민에게 언제나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쿠웨이트국가 추장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2015년 9월 9일 쿠웨이트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겨가고있다.
—김책시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은하과학자거리에 넘치는 은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는 은정속에 멋지게 솟아오른 은하과학자거리에 기쁨의 웃음소리 드높다. 행복이 무르녹는 과학자거리의 전경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떠올린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주체102(2013)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친히 돌아보시였다.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살림집지구가 멋있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과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히 웃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며 훌륭한 거리를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차넘치였다. 일군들이 제기한 건설안보다 곱절이나 많은 살림집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학교와 병원,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공원들도 꾸리도록 하시여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살도록 해주신 우리 원수님의 은정이 어려와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과학자살림집지구를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깊은 감동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는 멋에 혁명을 하는것이라고 다시금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인민의 기쁨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풍모에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가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여러 살림집들도 일일이 돌아보시며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친어버이정을 기울이시였다. 방에 들어서시여서는 마감건재와 가구의 질은 어떠한가,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졌는가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부엌에 들리시여서는 손수 찬장문도 열어보시고 가시대도 만져보시며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꼭 친어버이의 모습그대로였다. 친히 살림집건설계획과 설계를 지도해주시고 비내리는 궂은 날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여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그토록 뜨거운 정을 기울이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살림집만이 아니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탁아소와 유치원도 찾으시고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자라도록 모든 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리고 은하원의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과 상점을 비롯한 상업 및 편의봉사기지들도 일일이 돌아보시며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이 지구를 《은하과학자거리》라고 부르자고 은정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가득 어린 새 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그날 과학자들은 다함없는 감사와 불타는 충정, 보답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들의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하한다고, 모든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불멸의 친필을 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과학자들의 가슴가슴은 충정의 맹세로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 그 은정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로 더욱 힘차게 떠밀어나가겠습니다!

본사기자 김인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메히꼬합중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메히꼬

메히꼬합중국 대통령
엔리께 뻬냐 니에또각하

나는 메히꼬독립 20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9월 16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엠. 하즈룰 카림 주조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방글라데슈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몸소 가르쳐주신 다시마양식방법

올해에도 서해지구 부포, 옹진,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는 많은 바다나물을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하지만 건강장수에 좋고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먹는 다시마를 어떻게 우리 나라 바다에서 인공적으로 양식할수 있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것이다.
주체47(1958)년 11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앞바다에 꾸려지고있는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 친히 다시마종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나라에서도 능히 다시마를 양식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완성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다시마를 대대적으로 양식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많이 먹여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어버이 그 사랑이 빛이 되고 자양분이 되여 부포바다가양식장에 드디여 다시마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정보당 수확고가 높지 못하였다.
수확고를 높이자면 가을철에 기르던 다시마모를 여름철에 키워 생육기간을 늘여야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무더운 여름철에 다시마모를 키우는것을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마양식도 과학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농촌경리부문에서 벼랭상모를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고있는것처럼 수산부문에서도 다시마양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 변이 날것이라고 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깨우쳐주신 다시마모기르기방법이였다.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양식공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여름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다시마생산량을 철씬 늘이였다. 그러한 실태를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여름모로 생산한 다시마를 평양에 올려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시마가 도착하자 회의마저 미루시고 휴게실에 나오시여 물이 흐르는 다시마오리들을 만져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다시마 한오리의 길이가 무려 7m, 무게는 1.8kg이나 나갔다.
진정 논농사에 뱅상모를 받아들인것처럼 바다농사에서도 혁명을 일으키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그런데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름모로 다시마를 자래우느라 수고들 했다고 하시며 그 모든 성과를 양식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에서 해마다 양식해야 할 다시마생산목표를 정해주시며 다시마여름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다시마인공양식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성공시켜주신 다시마인공양식에 대한 그날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황금해의 새 력사와 더불어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박상훈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선교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선교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위대성자료들을 생산자대중속에 해설하는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한편 그들이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당건설업적을 깊이있게 해설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해설모임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얼마전 생산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해설모임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멸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실속있는 교양사업을 통하여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당건설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긴 이곳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당창건 일흔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당면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자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야전식으로

청진시 송평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총공격전의 발구름소리높은 단위들에 가보면 례외없이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당원들을 만날수 있고 대중을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조직들을 볼수 있다.

최근 실적을 올리고있는 청진시 송평구역당위원회 사업을 통해 느낀점도 바로 이것이다.

이곳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이곳 구역당위원회의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특징적인것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해볼수 있다.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진행한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실이 아니라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야전식으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든것이다.

구역당위원회가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였는가를 보자.

우선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여기에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철저히 지향시켰다.

김송남, 김성춘동무를 비롯한 구역당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다.

지난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을 받아안았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되새겨볼수록 구역당일군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구역의 령도업적단위들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었던것이다.

이를 계기로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적으로 진행할 새로운 작전을 세웠다.

당책임일군들은 령도업적단위들에 자기의 위치를 정했다.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집행정형을 건별로 따져보고 초급당회의와 당세포총회, 학습, 분공조직을 비롯한 당원들의 당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철저히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지향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당원들속에 들어가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심화시키고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그것은 옹당한 열매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주변의 상업봉사건물이 새롭게 변모되고 룡호협동농장의 앞그루감자농사에서는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였다.

이런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련속 펼쳤다.

여기서 중요한 방도로 찾은것이 야전식이다.

지난 시기 일부 구역당일군들속에서는 아래단위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있었다. 다시말하여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는 해당 단위 당조직들의 사업으로만 여기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어떤 일군들은 단위에 내려가 회의에 참가하여 일반적인 강조나 하고 돌아오는가 하면 사무실에 앉아 문건에만 매달리는 편향이 나타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무실적 사업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당일군들이 직접 대중속으로 들어가 야전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맡아하는 부서는 물론 구역의 모든 당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당원들을 만나는것을 습성화하고있다.

송평피복공장에 나가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든 어느 한 당일군의 실례를 보자.

그때까지 이 공장의 실태는 씨원치 못했다.

공장이 당장 일떠선다는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격이라고 하면서 일부 일군들은 이 공장을 외면하다싶이 하였다.

하지만 그 당일군은 공장에 자주 나갔다.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장의 생산과 현대화에서 걸린 문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였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정형도 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공장초급당조직에서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며 당세포비서들이 당원들에게 분공은 어떻게 주는가, 그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느 당원이 당적분공을 잘 수행하고 또 어느 당원이 분공수행에서 뒤떨어지는가 하는것도 환히 알게 되였다.

그에 기초하여 그는 당조직에서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은 곧 당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선봉투사

◇ 당창건 일흔돐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나라 당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참가한 공훈건설자인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리선길동무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우리는 30층아빠트골조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지금은 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습니다. 물론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지만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맡은 대상건설을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릴것을 맹세한 당원들이기에 오늘의 하루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랴.

내 조국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는 미더운 당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선봉투사들이 있어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 조선로동당원의 부름—선봉투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 선봉투사들입니다.》

선봉투사!

당창건의 그날로부터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는 선봉투사라는 그 부름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온 조선로동당원들의 값높은 삶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락원의 10명 당원들, 그들은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맨손으로 수류탄을 만들었고 전후에는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속에서도 양수기와 굴착기도 만들어냈다.

이들처럼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투사들인 우리 당원들이 있었기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동유럽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지던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할 충정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린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의 당원들과 같이 이 땅의 모든 당원들이 산악같이 떨쳐나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부강조국건설의 힘찬 진군길을 걸어왔다.

이렇듯 우리 당의 력사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하여온 당원들의 자랑찬 투쟁력사이기도 하다.

우리 당원들의 충실성의 력사와 전통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의 선봉투사들인 우리의 미더운 당원들이 있기에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 당원들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야 한다.

오늘 누구보다도 분발하고 뛰여야 할 사람들은 우리 당원들이다. 당원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에 따라 올해전투의 승패가 결정된다.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펄펄 끓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가 되여야 한다.

당원들은 정신력의 최강자가 되여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치는데 한몸 서슴없이 바침으로써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척후병이 되여야 한다.

당앞에 다진 맹세는 그 어떤 말이 아니라 불같은 실천이여야 한다.

당창건기념일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당원들이여!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대오의 앞장에서 발걸음에 번개가 일도록 뛰고 또 뛰자.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여 조선로동당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자.

가장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찾으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보수2작업반 당세포 당원들

올해에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속보판에는 사람들을 놀래우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어느때보다 많이 실리였다. 그중에서도 보수2작업반 당세포 당원들의 투쟁소식이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고있는 이곳 당세포 당원들의 열의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어느 초소에서 일하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당생활년한이 갈지 않아도 이곳 당세포 당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투쟁기풍이 있다. 늘 가장 어려운 곳에 자신들을 세우고 한몸을 초불처럼 태우는것이다.

아래의 사실은 그 일단을 감동깊이 말해주고있다.

지난 4월 어느날, 1호보이라 좌측분쇄기대치차를 교체해야 할 긴급한 정황이 제기되였다.

그것을 맡아할 련합기업소 열설비보수사업소는 한창 바쁜 일감을 안고 돌아가고있었다.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보수2작업반 당세포 당원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1호보이라의 정상가동을 죽으나사나 보장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밑에 그들은 지체없이 당원협의회를 열었다.

열띤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물론 지금껏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일이여서 사람들은 모험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가능한 일만 골라서 해왔는가. 가장 어려운 길에 자신들을 세우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그 길이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는 길이다!

작업반장 차기복, 당세포비서 리기섭동무들은 물론 엄창수, 강원일, 장정혁, 한금철, 김철, 김영식동무들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의 심장이 이렇게 하나로 끓어번졌다.

직장초급당일군들과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역시 기적은 하늘에서 오는 우연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에서 오는 필연이였다.

당원들이 앞장에 서서 결사적으로 벌린 투쟁에 의하여 그처럼 힘에 부치게 여겨지던 분쇄기대치차교체작업은 5일이나 앞당겨 끝나게 되였다. 분쇄기는 마침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갔다.

어찌 이때뿐이랴.

지난 6월 자기 한몸보다 전력생산의 정상화를 먼저 생각하며 뜨거운 열풍을 확확 내뿜는 1호보이라 우측분쇄기안에 들어가 희생적으로 쇄석판을 보수해낸 유경석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의 영웅적희생성에 대한 이야기…

비록 총포소리는 울리지 않아도 원쑤격멸의 돌격전에 앞장섰던 전화의 나날의 당원들처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한몸 서슴없이 내대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보수2작업반 당세포 당원들이였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찾으라!

바로 이것이 10월의 대축전장에 충정의 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려는 이곳 당원들의 비상한 의지이고 불같은 실천이다.

본사기자 리 정 수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일념안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길주합판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단상 당결정서

대안땅은 환희로 들끓고있었다. 마지막발전설비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보내게 되였던것이다.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를 올리는 대안사람들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바로 이날을 위해 그들이 바쳐온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나의 마음도 후더워올랐다.

《드디여 당결정을 집행하였소!》

발전설비를 어루쓸며 격정을 터치는 한 로동자의 말이 나에게 준 충격은 컸다.

당결정서!

이 땅의 그 어느 단위에서나 당창건 70돐에 드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당원들의 불타는 결의가 담긴 목표들을 당결정서에 쪼아박았을것이다.

당앞에 다진 그 맹세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대안의 당원들은 똑똑히 보여주었다. 수백℃의 고열속에서 용접전투를 벌린 용접공들이며 자기가 가공해야 할 부속품들의 이름과 수행날자를 기대결에 써붙이고 쪽잠으로 날과 날을 이어온 선반공들, 생의 마지막박동까지 발전설비조립에 깡그리 바친 오랜 조립공…

당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피와 땀과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당원들은 그 얼마였던가.

이렇게 그들은 당결정서에 《집행함》이라는 량심의 글발을 새기게 되였다. 10월의 대축전장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는 승리자의 이름처럼.

그렇다.

집행된 당결정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겠는가.

한 영 철

대오의 기수로

연안군 소정리당위원회 일군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장벌마다에서 당원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리당비서 전종운동무는 작업설참을 리용하여 제3작업반의 당원들과 마주앉았다.

그는 농장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하게 들어서자면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반의 당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기수가 되자고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또한 그는 당원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원들의 가정방문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리당일군이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린 결과 당원들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9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9월 하순에 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고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크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것이 예견된다. 이 기간에 해발 800m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서리가 내릴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 맞게 논벼농사에서는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고 벼가을걷이를 제때에 진행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여물기과정에 대한 조사를 잘하여 가을걷이적기를 정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가을걷이를 적기보다 일찍 하면 낟알이 채 여물지 못하여 소출이 떨어질뿐아니라 푸른 낟알이 많이 생겨 쌀의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 벼가을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하면 천알질량이 줄어들며 벼알이 땅에 떨어지거나 쥐와 새, 우박피해로 인한 손실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을걷이시기를 바로 정하고 제때에 수확하여야 한다.

논벼의 가을걷이시기는 벼의 형태학적특징과 낟알의 수분함량, 이삭이 팬 후 여무는 기간에 기초하여 정할수 있다.

벼알의 색변화를 조사하여 수확적기를 판정할수 있다. 가을걷이적기를 이삭의 변화를 기준으로 정하는것이 좋은데 벼알색이 기본적으로 누른색을 띠면서 이삭에서 푸른알비률이 5%미만이면 가을걷이적기로 볼수 있다.

포전별 이삭팬 날자와 품종별 여무는 기간에 기초하여 가을걷이적기를 판정할수 있다. 여무는 기간은 늦종, 중간늦종에서 45일정도이며 중간종이나 중간올종에서 40일정도이다. 올해 봄철에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물이 부족하여 모내기를 늦게 하였고 영양생장기간 낮은 온도와 심한 가물, 염피해로 생육장애를 받아 이삭패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으므로 포전별로 이삭팬 시기와 여무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을걷이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벼알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수확적기를 판정할수 있다.

수분함량이 25%정도로 감소되면 벼알의 마른 무게가 거의 최대값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이 시기를 수확적기로 볼수 있다.

수확전논물떼기를 제때에 하여 가을걷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품종별 논벼의 이삭팬 시기와 여문 상태, 토양조건을 고려하면서 논물떼기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 논물을 일찍 떼여 논에 금이 가면서 뿌리가 끊어져 논벼의 여물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땅속물층이 높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이나 질흙, 질메흙논에서는 수확하기 7~10일전에, 물이 잘 빠지는 논이나 모래기가 많은 논에서는 수확하기 5~6일전에 논물을 떼는것이 좋다.

가을밀, 보리농사에서는 이식재배, 영양단지모재배를 위한 모판준비와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영양단지모, 이식재배를 위한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를 잘하여야 한다.

밀, 보리이식재배는 모판형태의 파상우에 씨앗을 뿌리고 4~5잎 된 모를 떼장식으로 떠서 영양흙이 붙은채로 포기당 2~3대씩 갈라서 옮겨심는 방법이다. 영양단지모재배는 단지마다 씨앗을 2~3알씩 넣은 다음 4~5잎 되게 키워 단지채로 모를 옮겨심는 방법이다. 가을밀, 보리를 이식재배하거나 영양단지모재배하면 종자를 절약하면서도 겨울나이률을 최대로 높여 평당 이삭아지수를 늘이고 소출을 훨씬 높일수 있다.

모판만들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판을 규격대로 만들며 부식토, 질소비료, 닭배설물, 린회토, 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섞어서 리용하여야 한다. 토양습도가 80%정도로 보장되도록 하고 수평고루기를 하여야 한다. 씨뿌리기를 적기에 진행하며 그 량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평지대에서 뒤그루감자밭비배관리를 잘하며 고지대에서 감자수확을 제때에 끝내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발효먹이도입에서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송원군 신양협동농장에서

축산에서는 먹이이자 곧 생산이다.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고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를 받아들여 알곡먹이소비기준을 지난 시기보다 40% 낮추면서 고기생산을 늘여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준것은 물론 농장원세대들에 대한 고기공급을 매달 정상화한 송원군 신양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기생산을 늘이자면 무엇보다도 먹이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농장의 축산을 보면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를 받아들이는데서 중시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발효먹이생산에서 기본인 토착미생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농장에서는 몇해전부터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로 축산을 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한해두해 세월이 흐르면서 축산물생산이 떨어졌다. 그 원인은 토착미생물을 배양하자면 적으나마 알곡이 있어야 하는데도 있지만 기본은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중도에서 꿰버린데 있었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은 자신들을 돌이켜보았다.

현실은 토착미생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산을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찾은 교훈은 심각하였다.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라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련계를 가지였다.

목표가 혁신적이면 방도가 생기는 법이다.

품을 들인 보람으로 토착미생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대답이 나왔다. 산속의 가랑잎을 들춰보면 뽀얀 곰팽이가 있는 부식질을 볼수 있다. 그 곰팽이가 바로 토착미생물이다. 그러므로 이런 부식질을 찾아 리용하면 알곡을 쓰지 않고서도 토착미생물문제를 해결할수 있었다.

성공의 실머리를 쥔 일군들은 제2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며칠후 이런 부식질로 발효먹이를 생산할수 있다는것이 증명되였다.

농장에서는 즉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때 일군들이 잘한것은 돼지사양공들을 참가시켜 그들이 알곡이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게 한것이다.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던 날이였다. 곰팽이가 있는 부식질로 발효먹이를 생산하는것을 본 사양공들은 무릎을 쳤다. 해당지역의 산림과 토양 등에서 고착되여 살아가는 미생물이 바로 토착미생물이라는것을 알게 되였기때문이다.

이날 보여주기사업은 그들에게 품을 적게 들이면서 토착미생물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그 실효는 대단히 컸다.

그후 작업반들에서는 물론 독립분조들에서도 축산에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농장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농장원세대들에서도 이 먹이를 받아들이도록 한것이다.

옳은 방법론이 안받침된 작전은 성공하기마련이다. 이 소문이 퍼지자 농장원들도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군들은 모든 작업반, 독립분조들에서 농장원들을 위한 기술전습을 조직하고 그들이 직접 제손으로 먹이를 가공해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 독립분조들에서 기술전습이 진행되였다. 결과 농장원들도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를 만드는데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환히 알게 되였다. 따라서 농장원세대들에서도 경쟁적으로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알곡먹이소비기준은 지난 시기보다 40% 낮아지고 돼지마리수는 계속 늘어나 년간고기생산이 1.3배 올랐다.

경험은 일군들이 먹이이자 곧 축산물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 실천에 옮길 때 성공의 지름길이 마련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맵시있는 초물제품을 많이 생산

초산군직매점 가내작업반에서 왕골, 싸리, 오사리를 비롯한 지방자재를 가지고 구럭, 가방, 방안신, 바구니, 채반을 비롯한 수십가지에 달하는 초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자와 구럭, 방석, 참쑥을 말리워 넣은 베개, 방안신, 돗자리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은 그 수요가 계속 높아가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쓰던 싸리채반, 버들음식그릇들은 호평을 받고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이곳 가내작업반에서 생산한 초물제품들은 우수하게 평가되고있다.

가내작업반원들은 한개의 초물제품을 만들어도 쓸모있고 맵시있게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문정옥, 김혜련, 김영숙동무를 비롯한 기능공들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을 높여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직매점일군들은 매월 초물제품품평회를 진행하면서 가내작업반종업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가내작업반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면서 소나무, 호랑이, 학, 원앙새를 형상한 초물주단, 초물벽걸이와 초물공예품을 비롯한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의 가지수를 늘이고있다.

이와 함께 주문생산도 적극 내밀고있다.

군에 흔한 지방자재와 로력으로 인민들의 수요가 높고 인기있는 초물제품을 많이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가.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 세 웅

인재중시, 과학중시에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사업경험이 주목된다. 그도그럴것이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주저앉아있던 자그마한 사업소가 오늘은 남포시에서는 물론 전국의 수산부문에서 소리치며 내달리는 단위로 손꼽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몸이 열쪼각, 백쪼각 나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겠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충만되여야 합니다.》

2012년부터 사업소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왔으며 특히 해마다 늘어난 물고기잡이계획을 두배, 세배로 넘쳐 수행,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는 몇년전의 최고생산량에 비해 수십배나 더 많은 물고기잡이계획을 9월현재까지 두배이상 넘쳐 수행하고 지금은 당앞에 결의한 증산목표를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

사업소가 이룩하고있는 혁혁한 성과들은 들을수록 놀랍다.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했을뿐입니다.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배인 박승일동무의 말이였다. 사업소일군들의 사업과정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명으로 된다.

사생결단의 실천을 담보한 인재중시

박승일동무가 당의 신임에 의하여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전 가을이였다.

사업소의 실태는 예상했던것보다 더 심각하였다.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절반도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소, 론의대상으로 된 사업소의 존재가치…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허빈것은 결코 사업소의 빈약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아니였다. 사업소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관심속에 2002년에 조업한 사연깊은 수산물생산기지라는 사실이였다.

종업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박승일동무는 말하였다.

나는 지배인으로서 동무들과 함께 사업소를 3년안에 남포시에서 손꼽히는 단위로, 5년만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는 사업소로 일떠세우려고 한다. 그러자면 우리모두가 사생결단해야 한다. 찬성하는 동무들은 일어서자.

사실 이것은 박승일동무가 자기자신에게 한 절절한 호소였다. 모두가 엄숙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날 사업소의 곳곳에는 붉은 기발들이 높이 날리였다.

사업소의 전망적인 물고기잡이목표는 당시 년간계획의 30배에 달하는 량이였다.

박승일동무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최단기간에 이 방대한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그이께 기쁨드릴 결사의 각오를 다지였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지나 너무도 뜻밖에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에 서게 된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에 다진 맹세가 더욱 억척같이 자리잡았다.

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대기는 그에게 나아갈 방도를 가르쳐준것은 우리 당의 인재중시정책이였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재를 발동하고 인재를 중시하여 기적을 안아올데 대한 우리 당의 인재중시사상을 깊이 학습할수록 박승일동무는 배심이 생겼고 온몸에 나래라도 돋친것 같았다.

우리 당의 인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의 고리를 풀어 열, 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였다.

박승일동무는 신심을 가지고 인재력량을 꾸리는 사업부터 밀고나갔다.

우선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젊고 재간있는 제대군인들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소의 력량을 보강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소의 현존기술자, 기능공대렬을 강화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서 잘한것이 있다. 일정한 기술력량이 준비되였을 때 대담하게 통이 큰 일관을 벌리고 그 수행과정을 통하여 사업소의 인재력량을 튼튼히 다진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실천을 통하여 인재들을 선발, 검증하고 실천과정을 통하여 그 능력을 더욱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사업소에서는 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배를 못기 위한 큼직한 일관을 펼치였다. 당시의 사업소형편에서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목표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박승일동무는 주저하지 않았다. 물고기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배무이를 앞세워야 하며 어렵고 힘든 배무이를 제힘으로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인재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종업원들스스로가 깨닫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는 선박설계기관들과 배무이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먼저 하나하나 기술을 배우는 한편 여러곳을 다니면서 이 부문의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을 한명한명 찾아내여 사업소로 데려왔다. 그런 속에 처음으로 무은것이 22hp짜리 작은 배였다. 비록 자그마한 배였지만 사업소가 얻은 성과는 컸다. 그 과정에 사업소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튼튼히 마련한것이였다.

사업소일군들의 인재중시전략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인재들을 대담하게 믿고 통이 큰 일감을 맡겨주어 그들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주는것이다. 간혹 우리 주위에는 아무리 인재력량이 준비되여있어도 그들의 힘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그로부터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지 못하는 일군들도 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재중시라고 할수 없다. 인재는 책상앞에서가 아니라 실천활동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여야 진짜인재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주신 말씀에 접한 사업소에서는 대담하게 자체의 인재력량을 믿고 《단풍》호계렬의 현대적인 고기배를 무을 결심을 하였다. 문형기중기도 없는 사업소에서 배모양은 물론 용접상태, 기관의 위치, 설치각도 등에서 높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단풍》호계렬의 고기배를 무어낸다는것은 사실 기적을 창조하는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미세기때 물살속도에 관계없이 어로작업을 안전하게 할수 있고 안강망작업을 하는 다른 배들보다 하루 기망회수를 보통 두배로 보장할수 있는 《단풍》호계렬의 고기배를 자체의 힘으로 무어내는것은 더 높은 물고기잡이계획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고지였다.

박승일지배인은 이 어려운 과업을 사업소자체의 기술력량, 인재력량으로 맡아 수행할것을 결심하였다. 이것은 현대적인 고기배 한척을 못는가 못 못는가 하는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였다. 우리 당의 인재중시정책의 생활력을 실천을 통해 확증하고 앞으로 사업소가 이것을 확고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으로 하여 일떠설수 있는 돌파구를 여는 중요한 문제였다.

박승일동무는 이렇게 세우고 어떤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반드시 《단풍》호계렬의 고기배를 무어낼것을 결심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호소하였다.

책임일군의 대담한 결심과 믿음에 고무된 전규섭동무를 비롯한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은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배무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미 배무이를 해보면서 얻은 경험을 적극 살려 단 석달만에 서해의 어장조건에 맞는 《단풍》호계렬의 배를 설계하였으며 이어 넉달도 안되는 기간에, 그것도 순전히 겨울철조건에서 배무이를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급기관의 일군들은 물론 권위있는 선박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어떻게 크지 않은 수산사업소에서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는 이처럼 현대적인 고기배를 자체의 힘으로 무을수 있었는가고 연해연방 묻고 또 물었다.

그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명백하였다.

인재중시에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최윤선동무가 선장으로 일하는 이 배에서는 이미 상반년안에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지금은 서해의 수산부문적으로 《단풍》호계렬의 고기배로서는 최고실적을 낼 열의에 넘쳐 돌진하고있다.

자기들의 힘으로 무은 고기배가 검푸른 파도를 기세차게 헤가르며 물고기잡이실적을 올릴 때마다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우리 당의 인재중시정책이 낳은 풍성한 결실이라고 자랑하군 한다.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사업소 일군들은 만족을 모른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인재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지금 박승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곳 사업소에서는 더 많은 인재력량을 마련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머리가 좋고 탐구심이 강하며 사업에서 열정적인 젊은 종업원들을 선발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해마다 적극적으로 망라시켜 키우는 사업을 중요하게 내밀고있다. 종업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게 하는 한편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우대를 잘하고있는 사실들도 이곳 일군들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인재중시기풍의 일단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인재력량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날을 따라 높아지니 사업소의 힘은 그만큼 커지고있다. 부원 김승규, 어로관리원 김철룡동무들을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지금까지 사업소에 필요한 고기배를 포함하여 다른 단위들에서 주문받은 각종 배를 9척이나 무어냈으며 배수리, 물고기잡이와 희귀성물고기축양 등 사업소가 펼치는 모든 일관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인재중시전략이 낳은 풍성한 열매들이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안속있게 추진되고있다. 말하자면 더 많은 인재를 자체의 힘으로 키우기 위한 만단의 준비라고 말할수 있다.

당의 인재중시정책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체득한 이곳 사업소는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도 반드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이다. 그 길만이 사업소의 더 눈부신 비약을 담보하기때문이다.

과학중시로 마련해가는 물고기풍년

과학을 중시하는 길에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모르는 일군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말로만 과학을 중시하고 실천활동에서는 재래식일본새와 경험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이 없지 않다. 그것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일군들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전진과 비약의 힘있는 무기로 틀어쥔 최첨단돌파시대의 당당한 기수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곳 사업소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많다. 그 많은 성과들은 어느것이나 다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안아온것이다.

사업소일군들의 과학중시기풍에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과학기술중시를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분야에 국한시키는것이 아니라 사업소의 전반활동이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되도록 키잡이를 잘하고있는것이다.

최근년간 사업소에서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물고기잡이성과는 그것을 뚜렷이 증명하고있다.

사실 《단풍》호계렬의 고기배까지 무어냈을 때 사업소종업원들의 사기는 대단했다. 이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승일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물고기잡이에서도 과학기술을 철저히 앞세워야 한다는것이 이들의 확고한 견해였다. 이런 립장에서 진행한 첫 사업이 어장탐색과 어황예보의 과학화사업이였다.

물고기잡이에서 어장탐색과 어황예보의 과학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따라 물고기잡이량이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부터 사업소에서는 어장탐색과 어황예보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어황조건이 수시로 달라지는데 맞게 현대적인 어군탐지기를 마련하여 생산에 리용한것은 많은 경우 경험주의에 매달려 진행되던 어장탐색이 철저히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되게 한 결정적계기였다.

배가 늘어나는데 따라 모든 배들에 전지구위치결정체계를 비롯하여 방향탐지, 항해탐지설비들과 대화통신기재들도 그쯘히 갖추어주어 물고기잡이에서 주먹구구식, 경험주의를 철저히 타파하였다.

물고기잡이에서 과학기술을 철저히 앞세운 이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가 있다. 그물을 현대화하고 어로작업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데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이다.

사실 지금의 어황조건은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이 변하였을뿐아니라 불리해졌다. 종전의 낡은 물고기잡이방법에 매달려가지고서는 입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회유어족을 잡기 힘들다.

이로부터 박승일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주관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무턱대고 그물을 크게 만드는 현상을 극복하고 물살속도가 달라지는데 맞게 그물이 받는 힘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어로작업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기본은 어로작업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기망당 어획량을 늘일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것이였다. 그러자면 그물의 크기를 최량적으로 정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사업소의 기술력량은 물론 어로공들까지 합심하여 그 방도를 찾기 위한 진지한 사색을 기울이였다. 그 과정에 종전처럼 길이가 보통 백수십m되는 그물을 땅우에 내려놓고 2~3일동안이나 물고기종류에 맞는 그물형태를 만들지 않고 배우에서 직접 30~40분동안에 부분적으로 떼고붙이는 방법으로 종류에 관계없이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착상된 합리적인 그물구조가 설계되였다.

새로운 기술혁신의 도입으로 사업소가 얻은 리익은 대단했다. 바다에서 륙지로 오가는데 드는 많은 연유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어 누구나 좋아하였다. 이들이 자체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만든 이러한 그물은 즉시 서해의 다른 도입자들속에도 널리 퍼졌는데 호평이 대단하다고 한다.

과학기술중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색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하며 점령해야 할 목표가 높고 아름찰수록 과학기술중시를 해야 한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매 배들의 어로작업과정, 다시말하여 어느 해구의 얼마만한 물깊이와 온도에서 무슨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를 날자별로 구체적으로 장악한 자료기지도 차곡차곡 구축하고있다. 종전과 달라진 어황조건에 맞게 시기별, 물고기종류별에 따라 형성되는 어장을 앞질러가며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지식자원이 물고기잡이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쥘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이들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 덕을 톡톡히 본 이들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더 큰 물고기대풍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한 단위의 과학기술중시기풍과 일군의 실력문제이다.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배인 박승일동무를 가리켜 누구나 사색가, 실력가라고 부른다. 박승일동무의 높은 실력과 진지한 탐구정신은 이곳 사업소의 과학기술중시기풍확립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사업소에는 희귀성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두동의 실내축양장이 있다.

박승일동무가 지배인으로 오기 전까지 이 축양장들의 리용률은 매우 낮았다. 겨울철에 중유보이라로 온도를 보장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때문이였다. 값비싼 수입연료를 대지 못하여 몇해째 변변히 돌리지 못했다는 보이라는 그가 사업소에 온 첫날 눈에 걸린것들중의 하나였다.

박승일동무는 그때부터 이 축양장을 되살리기 위한 진지한 사색을 기울였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진지한 협의도 해보았다. 결과 비싼 중유대신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으로 희귀성물고기축양에 필요한 온도조절을 원만히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상급기관과의 합의밑에 실리에 맞지 않는 중유보이라를 석탄보이라로 바꾸고 탄광을 개발하여 필요한 석탄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대담한 조치가 취해졌다.

사업소의 구체적실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사색에 기초하여 내린 지배인의 이 결심은 짧은 기간에 실현되여 겨울철에도 품질이 높은 희귀성물고기를 기를수 있게 되였다.

지배인의 사색은 이 실내축양장에서 여름철에는 더운물을 좋아하는 열대성민물고기인 메기를 기를수 있다는 착상에로 또다시 이어졌다. 그야말로 단번에 성공하였다. 여름철에는 거의나 비여있다싶이 하던 실내축양장에서 옥실대는 메기를 보며 종업원들은 환성을 올렸다. 지금도 실내축양장과 단백풀이 덮인 야외축양장에서는 수만마리나 되는 메기가 쑥쑥 자라고있다.

박승일지배인의 이러한 진지한 사색에 기초한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일본새는 자연얼음을 리용한 얼음창고를 건설하여 거의 한해동안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에는 더욱 그렇다.

과학기술중시에 살길이 있고 비약의 방도도 있다. 그러자면 우리 일군들부터가 사색가, 실력가가 되여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전략을 구상하고 앞장에서 실천하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 실력이 없는 일군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한 단위를 이끌수 없으며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킬수 없다.

이곳 수산사업소에서는 지금 많은 사업들이 혁신적으로 전개되고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박승일지배인이 구상하고 씨를 뿌린것이다.

모든 배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산지휘통신체계의 도입, 초급동시설을 갖춘 종전보다 10배나 되는 물고기가공장건설, 전마선의 리용수명을 몇배로 늘일수 있는 수지피복방법의 도입…

일군이라면 아래사람들에게 일감을 줄줄 알아야 하며 그러자면 자신부터가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여 많이 알아야 한다는것이 박승일동무의 주장이다. 실지로 그는 사업소의 경영활동을 조직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밤이면 3~4시간씩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앞선 과학기술자료들을 조사하는것을 생활화하고있다.

아는것이 힘이다. 일군의 지식과 실력이야말로 한 단위, 한 기업소가 당의 과학기술중시전략을 실천으로 구현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며 원동력이다.

박승일지배인의 방에는 매일 새벽녘까지 불빛이 꺼질줄 모른다. 종업원들은 그 불빛에서 더 힘차게 전진할 사업소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그려보군 한다.

박승일동무는 특류영예군인의 아들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신념의 맹세와 더불어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했던 제대군인이다. 우리 당이 품들여 키운 이런 일군들이 누구보다 앞장에서 서 인재중시, 과학중시를 생명으로,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일해나갈 때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느 단위에서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강진형
본사기자 려명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은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으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절찬속에 련일 진행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가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절찬속에 련일 진행되고있다.

극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여주신 공연을 보러 온 청년학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소합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무대에 하모니카와 혼성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남성기타5병창 《우리 앞날 밝다》, 가무와 민족기악3중주 《우리 민족 제일일세》, 선동과 독연 《청년혁명학교》, 재담 《청춘의 이름》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청년중시를 우리 혁명의 제일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청년강국건설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설화시와 남성독창 《금방석》, 시이야기 《위대한 태양의 품》 등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청년중시를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극이야기 《500만의 신념》,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어은금독주와 방창 《젊음은 급행렬차》를 비롯한 종목들은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청춘의 꿈과 리상의 돛을 달고 노도와 같이 전진해가는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의지와 담력, 끝없는 희열과 탕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종목들로 청춘들의 가슴에 전투적기백과 열정을 더해주는 공연은 시간이 갈수록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소합창 《조선청년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라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 청년결사대원들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에는 청년결사대가 있다. 20대 청춘들인 이들의 임무는 려단앞에 제기되는 가장 어려운 과업들을 맡아 해제끼며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려단이 어느 한 지구에 이미 있던 수십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받았을 때였다. 지휘부에서는 지난 시기 공사과제수행에서 항상 다른 단위들의 앞장에서 내달리던 그런 일본새로 이번 전투과업도 단숨에 수행할 목표를 세웠다. 대대들에서 주타격방향인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더 잘 꾸리는데 력량을 총집중한다면 얼마든지 그 목표를 수행할수 있었다.

하지만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배수로형성과 암거설치같은 보조타격방향을 맡을 익측이 되여주고 지대정리와 자재보장을 비롯한 선행조건보장을 담당하여 척후대역할을 수행해야 할 력량이 필요했다. 만일 대대들에서 그런 력량을 따로 조성한다면 주타격방향에서의 전진속도가 떠질수 있었다.

일군들은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때 이런 문제라면 길게 론의할 여지가 없다는듯 단호히 자리를 차고 일어서는 일군이 있었다. 려단 초급청년동맹위원장이며 청년결사대 대장인 김현철동무였다.

《우리가 익측이 되고 척후대가 되겠습니다.》

그의 담찬 말은 협의회장을 쩡 울리였다. 불과 20여명의 청년결사대원들이 모든 대대를 대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은 매우 아름찬 과제였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라.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인 우리가 다 맡자.

오직 이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초급청년동맹일군인 김명심, 소대장 김금성동무를 비롯한 청년결사대원모두가 그런 각오로 일떠섰다.

전투가 시작된 후 이들에게는 고정된 일감이 따로 없었다. 한동의 살림집주변에서만도 수십㎥의 토량을 처리하기 위해 마대전을 벌리다가도 대대들에 자재보장문제가 제기되면 블로크와 기와 등을 운반하고 막돌을 채취하였다.

필요한 곳에 제때에 나타나 긴요한 일을 앞질러 해제끼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대대들의 진격로가 빨리 열리고 총포탄과도 같이 귀중한 자재가 신속히 보장되였다. 스스로 맡은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대대들보다 항상 먼저 기동하고 화선병사마냥 전투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일자리를 푹푹 낸 청년결사대원들, 이들의 작업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 일군이 시간측정을 해본적이 있었다. 한개 대대가 하루동안에 해야 할 토량처리를 청년결사대는 그보다 더 빨리 결속.

이런 실례는 많다.

전투과정에 암거설치작업에 드는 로력과 자재, 시간을 측정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려단의 전반적인 공사속도보장을 위해 시급히 수행해야 할 이 과업이 청년결사대원들에게 맡겨졌다. 이들이 과업을 접수한 시간은 오전 11시, 그것을 수행한 때는 새벽 2시였다. 그 15시간동안에 이들이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하게 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였던가. 용감한 사람, 완강한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것,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적들에게 진지를 내놓은 병사라는 자각이였다. 깊은 밤 모래무지에 기대여 쪽잠에 들었다가도 리수복영웅이 남긴 시구절이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마냥 귀전을 울리여 벌떡 뛰쳐일어났던 청년결사대원들이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이 응축된 그 시구절은 이들의 넋으로 간직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영광스러운 길에서 오늘의 리수복이 되고 조군실, 강호영, 안영애와 같은 당의 참된 아들딸이 되도록 떠밀어주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려단에서는 자재절약을 위해 종전 건물을 헐고 블로크를 수집하여 리용하기로 했다. 그 일을 맡은 청년결사대의 한 대원이 무거운 블로크를 지고 발판을 오르다가 미끄러진적이 있었다.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하여주던 대원들은 그만 놀랐다. 몸을 가눔하기조차 힘든 정황에서도 블로크를 떨구어 깨뜨리지 않으려고 한팔로 꽉 감싸쥐고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눈굽을 뜨겁게 적시였다. 그에게 무조건 휴식하라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팔에 붕대를 감은채로 끝내 대오에 섰다.

청년결사대원들은 자기 몫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찾아하였다. 전투장으로 오가는 길에 품이 많이 드는 통나무쌓기와 그것을 제재하여 만든 제품을 해당 장소에 운반하는 일, 도로정리, 공사후 마지막처리에 이르기까지 큰일, 작은 일을 가림없이 도맡아 해제꼈다. 그리하여 려단이 맡은 과업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김성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16일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용외무상, 리명산 대외경제성 부상,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주조 아세안위원회 의장인 밤방 히엔드라스또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옴 씨싸와다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 팜 비엣 홍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폰캄 인타부아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모하마드 니잔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인도네시아, 캄보쟈, 웰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우리 나라와 아세안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도착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죠니 혼이 1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장 김창룡이 맞이하였다.

재일본조선인오사까부 체육협회대표단 도착

강호봉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오사까부 체육협회대표단이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안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우리의 애국심을 알려면 석탄산을 보라

남덕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우리의 애국심을 알려면 석탄산을 보라!

이것은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들끓고있는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그 어디서나 울려나오는 목소리이다.

자기들의 일터는 비록 수천척 지하막장이여도 마음속엔 언제나 창조의 동음높은 공장들과 불밝은 거리들에 넘치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소중히 안고 사는 탄부들,

막장을 굳건히 고이고있는 동발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억척같이 떠받들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이들의 하루하루는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부들은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생산하여 보장하는 로동계급의 핵심부대입니다.》

지난 6월 어느날이였다. 6갱 채탄2중대전투장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뽐프가 갑자기 고장으로 멎어선것이다.

막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귀중한 한초한초가 흘렀다. 뽐프가 수리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날계획이 드팀수 있었다. 그것은 탄부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것이였다.

이때 소대장 김광일동무가 탄차를 밀고 물속에 들어서며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동무들, 석탄산의 높이이자 전력증산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속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의 결정지시앞에서 주저한적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맙시다.》

전투는 중단없이 계속되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탄광일군은 그들의 모습을 깊은 감동속에 바라보았다. 여느때같으면 당장 물속에서 나오라고 소리쳤을것이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만큼 탄부들의 얼굴에는 비상한 각오가 어려있었던것이다. 그 일군은 탄차를 밀고나오는 갓 들어온 탄부의 곁에 다가서며 물었다.

《힘들지 않소?》

탄차를 미느라 옥물었던 입술을 풀며 탄부는 벌씬 웃음을 지었다.

《물속에서 탄차를 밀고나가느라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비쏟아지는 락동강으로 떼목을 몰아가던 영웅전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꼭 제가 그때의 근위병처럼 생각되는게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바로 이것이 남덕의 탄부들의 숨결이고 투쟁기질이였다.

탄부들은 허리치는 물속에서 결사전을 벌려 그날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차디찬 물속에서 오랜 시간 일하느라 옷에 감탕이 게발리고 온통 물참봉이 되였지만 탄부들의 얼굴에서는 밝은 미소가 피여올랐다.

남덕의 한초한초는 이렇게 흐르고있었다.

탄광에서는 화력탄의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무조건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였다.

갱막장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굴진작업을 맡았던 3갱 김영민교속도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여 불과 몇달동안에 800m구간에 달하는 기본굴진과 사갱굴진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위훈을 세웠다.

수백m구간의 벨트콘베아수송선 지상구조물공사장에서는 탄부들과 가두녀맹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려 실적을 올리였다.

지하와 지상에서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구조물공사가 벌어지고 설비와 부분품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그야말로 온 탄광이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였다.

갱별, 중대별, 소대별경쟁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10갱과 2갱의 탄부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 다른 갱들이 그뒤를 바싹 따랐다.

굴진소대들에서는 앞선 천공방법과 발파방법을 도입하여 순환당 전진속도를 부단히 높이면서 탄발을 넉넉히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채탄중대들도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곳 채탄공들은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막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교대간 서로 경쟁적으로 탄벽을 허물어냈다.

어느날 하루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막장을 나서는 굴진공들에게로 탄광초급당일군의 안해 리선희동무가 달려왔다.

《동무들을 위해 오늘 순두부를 앗았으니 어서들 우리 집으로 가자요.》

그날 곱배기까지 해가며 순두부를 들던 굴진공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마 우리 탄광의 굴진공들치고 이 집 순두부맛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래일계획은 두배이상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탄부안해들의 뜨거운 지성을 엿보게 하는 하나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남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성의있는 지원사업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남편이 뜻밖의 병으로 앓게 되자 전투장을 비울수 없다며 대신 달려나온 5갱 리충렬동무의 안해 김향심동무와 온 가족이 석탄전선을 지켜가는 10갱의 박복길, 최대준동무를 비롯한 혁신자가정들은 또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언제인가 평범한 탄부들의 자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떠날 때였다.

기쁨속에, 웃음속에 떠나는 자식들을 눈물이 글썽하여 바래우며 탄부들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삶의 품, 은혜로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자기를 깡그리 태워 열과 빛을 주는 석탄처럼 조국을 위해 피와 땀 아낌없이 바치리라고.

당창건 일흔돐을 석탄증산으로 빛내일 일념으로 오늘도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막장을 뒤흔드는 둔중한 발파소리, 높아지는 석탄산, 그것은 그대로 조국을 받드는 탄부들의 드높은 창조와 혁신의 숨결이며 값높이 새겨가는 애국심의 높이가 아니랴.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처럼.

이곳 탄부들의 가슴에 끓는 애국의 넋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를 깡그리 태워 열과 빛을 주는 석탄처럼 가슴에 끓는 애국의 열정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런 탄부들이 있어 나라의 석탄산은 더더욱 높아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인민의 행복에서 찾는 기쁨과 보람

봉산군 일군들

인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은 봉산군 일군들이 늘 안고 사는 물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해 봉산군당위원회에 새로 배치되여온 책임일군은 며칠동안 읍지구를 돌며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일일이 료해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길거리에서 물바께쯔를 들고 마주오는 한 녀인을 보게 되였다. 그는 녀인에게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가, 어디에서 물을 길어오는가 물어보았다. 심중히 묻는 일군의 말에 녀인은 한손을 들어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기 보이는 산골짜기에 가면 맑고 시원한 샘물이 철철 나온다기에 오늘 마음먹고 한번 갔다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멀긴 해도 물맛이 좋으니 읍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길어다먹는다고 덧붙였다.

그날 책임일군은 길거리에서 만났던 녀인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인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그 일을 더 구나 외면할수 없었다.

며칠후 그는 군안의 해당 일군들과 이 문제를 토의하고 수km 떨어진 산골짜기에서부터 자연흐름식으로 샘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였다. 하여 그는 읍지구까지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들게 할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였고 짧은 기간에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이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에 적극 떨쳐나섰다.

공사가 시작되여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 일손을 다그치던 그들의 앞에 커다란 암반이 나타났다. 하루빨리 인민들이 수질이 좋은 물을 마실수 있게 해주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던 전투원들의 얼굴에 한순간 그늘이 비끼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바로 이때 한 군당일군이 대오의 앞에 나서며 말했다.

《군인민들을 위해 우리들스스로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까. 이 물이 읍지구에 흘러들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입니다.》

해불대를 세워놓고 함마를 휘두르며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그의 뒤를 전투원들이 모두 따라나섰다.

하여 그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수원지기본물탕크와 중간물탕크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으며 1만여m의 수도관놓이기와 급수탕크들의 건설을 단 20여일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질이 좋은 물은 지금 읍지구 주민들의 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애쓰는 일군들의 일본새가 우리 읍지구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영예군인 장영조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군과수농장에서 수확한 첫물복숭아를 읍지구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과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이 먼저 받던 이야기며 거리와 마을, 가정을 더 밝고 환하게 꾸려주기 위해 군일군들이 밤낮이 따로 없이 헌신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가는 일군들의 노력으로 우리 당의 혜택이 봉산군 읍지구 주민들의 생활에 속속들이 미치고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도 기뻤다.

인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물음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봉산군 일군들, 그들의 성실하고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며 취재길을 이어가는 우리의 머리속에 줄곧 이런 말이 떠올랐다.

인민은 하늘, 일군은 심부름군!

본사기자 오은별

평범한 인사말속에 비낀 값높은 헌신

선교구역체신소 우편통신원들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우편통신원도 놓치지 않고 꼽을것이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정말 수고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식이 실리였구만요.

…

하루도 빠짐없이 우편통신의 길을 이어가는 그들이 받는 인사는 그렇듯 소박하다.

평범한 그 인사말들을 벗삼아 끝없이 비약하고 약동하는 조국의 새 소식을 안고 묵묵히 헌신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속에는 선교구역체신소 우편통신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느날 구역판내 체신분소들을 돌아보던 선교구역체신소 소장 리경덕동무는 강안체신분소의 어느 한 방에서 도란도란 울려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리순영, 강명숙동무를 비롯한 우편통신원들이 모여앉아 주고받는 말이였다.

《…로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에 출근하여 조국의 벅찬 숨결을 실은 당보를 보면 힘이 난다는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보니 신문배포시간을 좀더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래일부터 우리가 구역으로 신문을 받으러 가는것이 어때요.》

《그게 좋겠어요.》…

리경덕동무는 뜨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우편통신원들은 자기 체신분소에 출판보도물이 도착하면 그것을 해당 공장과 기업소, 주민지구들에 배포하는것이 맡겨진 임무였고 그것만으로도 수십리길을 걸어야 하는 헐치 않은 일이였던것이다.

얼마후 선교구역체신소에서 체신분소들로 가는 길에는 사람들속에서 《자전거부대》로 불리우는 행렬이 생겨나게 되였다.

불과 10리안팎의 로정에 나타난 자전거행렬, 그것은 당의 목소리를 대중속에 시급히 전달하여 그들이 조국번영의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기도록 하려는 선교구역체신소 우편통신원들의 충정과 애국의 행렬이였다.

모든것이 부족했던 고난의 시기 스스로 선동원이 되여 달리는 뻐스와 궤도전차안에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소식을 남먼저 전해주던 장진순, 황숙미동무를 비롯한 우편통신원들은 오늘도 들끓는 전투장마다에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해주며 헌신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3년전 여러날째 쏟아지는 폭우속을 헤쳐가며 당출판물배포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선교구역체신소 우편통신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무엇이였던가.

난관앞에서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당의 목소리가 신속정확히 울려퍼지지 못한다는 량심의 자각이였다.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 손자들이나 돌보며 있으면 자식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는 필요없는 인간이 되고말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목소리를 인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은 14년전 공훈우편통신원 박영혜녀성이 년로보장을 받은 날 당조직을 찾아와 남긴 말이다. 오늘도 이곳 우편통신원들은 당출판물보급선전의 길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 소박한 인사말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부강조국건설의 뿌리가 되여 묵묵히 우편통신의 길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참인간들에게 차례지는 값높은 표창이 아니랴.

신현규

아름다운 거리에 어려있는 소중한 꿈과 리상

강계외장재공장 로동계급

강계시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되고있다.

시를 찾는 사람마다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 공원들과 유원지들이 갖가지 색갈의 외장재로 단장되여 거리가 한결 환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질좋은 외장재를 자체로 팡팡 생산해내고있는 강계외장재공장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정초 강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때 공장지배인으로 임명되여온 안원동무는 자신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다시금 느끼였다.

당시 공장의 생산토대는 빈약했고 생산되는 외장재의 질도 높지 못했던것이다.

외장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는 강계시를 잘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었다.

안원동무는 종업원모임에서 긴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강도사람들이라고 정답이 불러주신 그들속에 우리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장군님의 은덕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안은 우리들일진대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일에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과 지혜를 합쳐 새 외장재를 만들어냅시다.》

안원동무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고회석—아크릴계외장재를 개발하자는것이였다. 여기서 제일 난점은 자연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원료물질들의 혼합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새로운 첨가제를 찾아내는것이였다.

그것을 손쉽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있었다.

그러나 종업원모두가 그길을 택하지 않았다. 누구나 애국의 마음을 안고 자기 고장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첨가제를 만들기 위한 고심참담한 길에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여러가지 원료들을 배합한 첨가제개발실험에서 실패가 거듭되던 어느날이였다.

말없이 새로운 실험준비를 다그치던 종업원들을 바라보던 지배인 안원동무가 무거워진 머리가 거뜬하게 바람이나 쏘이자며 그들을 공장밖으로 이끄는것이였다.

유유히 흐르는 장자강을 따라 펼쳐진 불밝은 거리를 이윽토록 바라보던 안원동무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처럼 멋진 우리 고장의 밤풍경이 바로 온 나라에 이름난 장자강의 불야경이 아니요. 우리 장군님의 고생과 바꾼 저 불밝은 거리를 낮에 보아도 한점 흠이 없는 선경으로 단장시키는가 못시키는가가 우리에게 달려있거던.》

안원동무의 말에 이끌리여 종업원들은 자기가 사는 정다운 거리를 새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기가 사는 일터와 고장에 대한 긍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외장재에 비껴야 할 깨끗한 량심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를 안고 종업원들은 또다시 외장재개발을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다.

수십차례의 실패속에서도 공장종업원들은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악한 투쟁을 벌려 질좋은 외장재개발에서 끝끝내 성공하고야말았다.

여러차례의 과학적인 실험분석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외장재가 수입산 외장재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눅으면서 질도 좋다는것이 최종확정되였을 때 공장로동계급이 맛본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 강계외장재공장은 종업원이 20여명밖에 되지 않지만 질좋은 외장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생산토대를 그쯘히 갖추고 건재전시장도 번듯하게 꾸려놓은 작아도 큰 공장으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외장재에 의해 자기들이 사는 거리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되던날 인사를 보내오는 사람들에게 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사는 거리가 그토록 밝고 아름다운것은 소중한 꿈과 리상이 깃든 이 땅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뜨거운 애국의 넋이 비껴있기때문이라고.…

본사기자 리건일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모마다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장진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더 높은 생산적앙양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성애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장수산언덕에 뜨겁게 굽이친 충정의 열기

평안남도안의 일군들과 각계층 인민들, 청소년학생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지난 7월 평성시 장수산언덕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수없이 새겨져있는 평안남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접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 순결한 충정을 다 바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 평성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 그리고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공사 전기간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돌격대원들과 일을 함께 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앞세워 모든 공정을 일정대로 밀고나가게 하였다. 특히 돌격대참모장사업을 맡은 도도시설계연구소 소장 김철동무는 불치의 병으로 운신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마지막까지 현장을 뜨지 않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돌가공을 담당한 도인민위원회 혁명사적관리국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돌가공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지닌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돌가공설비에 정통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필요한 돌가공제품들을 제때에 최상의 수준에서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모심사업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원석을 다시 운반하여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실수 있게 하였다.

도급기관들과 평성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동맹원들로 조직된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직접 참가하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를 안고 방대한 량의 도혁명사적관 벽체콩크리트치기와 광장바닥포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공사과제를 맡아 제기일에 해제꼈다. 자진하여 야간돌격대에 망라된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역시 공사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하루일을 마치면 공사장으로 달려와 버럭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사과제를 스스로 맡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도검찰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모심사업에 필요한 설비들을 스스로 맡아 해결하였으며 평성시와 순천시, 성천군, 평원군, 숙천군, 회창군, 대동군, 북창군, 문덕군당위원회들과 안주시상업관리소에서는 이곳 인민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많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기세와 열의를 북돋아주고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게 하였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은 다함없는 충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언제나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대상과제들을 맡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였다.

도무역관리국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상모심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도연유상사와 도림업관리국, 장수산려관, 평성시편의봉사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연유와 륜전기재 등 공사에서 제기되는 자재와 설비들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도안의 혁명가유자녀들과 반일애국렬사유자녀, 혁명가유가족들은 당의 사랑과 믿음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온 자신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모심사업에 앞장서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지원하였으며 야간돌격대에 망라되여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며 그들의 사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평성시 주례동 42인민반 최정애로인은 년로한 몸이지만 지난 4월부터 매일 야간돌격대에 나가 충정의 구슬땀을 바치였으며 평성시 옥전1동 16인민반 전쟁로병 홍종태로인과 송령동 26인민반 특류영예군인 리홍식동무를 비롯한 평성시와 도안의 수많은 전쟁로병, 영예군인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모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에 수종이 좋은 수십그루의 여러가지 꽃관목들을 정성껏 심고 가꾼 묘향지도국 산하단위 지배인 정향숙동무를 비롯한 도안의 수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주민들과 청소년학생들도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는 장수산언덕을 정중히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언제나 밝고 정중히 모실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혁명사적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련관 단위들에서 수령님들의 동상모심사업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의 지휘관, 병사들과 인민보안원들도 충정을 바치였다. 특히 도인민보안국 교통보안원들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보안원들은 막대한 량의 혼석과 모래를 비롯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운반을 책임적으로 맡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던 그 나날 장수산언덕으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충정과 고결한 도덕의리를 가슴에 새겨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세세년년 전해가려는 평안남도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이 낮이나 밤이나 끝없이 굽이쳐흘렀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뜨거운 정 넘쳐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한 평범한 영예군인의 가정에 넘쳐흐르는 뜨거운 정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저와 혈육의 정을 맺고 사는 사람들속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2학년 학생 리철진, 인민보안원 리철준형제도 있습니다. 소학교시절 어머니의 손목잡고 찾아와 꽃송이도 안겨주고 노래도 불러주던 그날로부터 이들형제의 뜨거운 마음은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대군인대학생으로, 인민보안원으로 성장해올수 있은것도 변함없이 혁명의 꽃을 피워가는 영예군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본받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를 혈육처럼만이 아니라 혁명선배로 존경하며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리철진, 리철준형제뿐이 아닙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인 정용국동무도 20여년전 보통강반에서 우연히 만난 때로부터 친형제가 되여 저를 위해줍니다. 그는 저의 자식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는 결혼상도 차려주고 부엌세간들까지 도맡아 해결해주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는가도 각근히 알아보며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세라 수십년세월 저와 가정에 기울인 리철진, 리철준형제와 정용국동무의 뜨거운 혈육의 정을 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영예군인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을 량심과 의리로 간직하고 진정을 바쳐가는 이런 참된 인간들이 있어 혁명의 꽃은 더 붉게, 더 활짝 피여날것입니다.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 37인민반 김영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

3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8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루르데스 쎄르반떼스 총서기를 비롯한 3대륙인민단결기구 성원들, 박창율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축하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1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 영상미술작품에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대표단, 메히꼬인민사회당대표단,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대표단,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조선통일지지 메히꼬위원회대표단 성원들과 방글라데슈 민용항공 및 관광상, 공보상,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방글라데슈군정치연구소조위원장,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정부 출판리사회 위원장,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파키스탄로동련맹 지도부성원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나이제리아 지가와주 보건성 상임비서, 우간다대통령부 국장,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양꼰지역위원회 집행위원인 틴 틴 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축하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9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과 각계 인사들이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외무성, 국방성, 공안성,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농업 및 농촌개발성, 친선조직들의 련합회, 호지명박물관, 사회과학원, 라오스조선친선협회, 라오스 안전보위성 안전총국, 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캄보쟈 상원, 인민당 중앙위원회, 크메르민주당, 먄마외무성, 상공회의소, 국제무역촉진쎈터, 이란이슬람교련합당, 이슬람교혁명무산자기구, 《로동자의 집》, 인디아 국민대회당, 공산당(맑스주의), 전인디아진보전선,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체스꼬 체히-모라바공산당, 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태권도협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적도기네 민주당과 정부, 에짚트조선친선협회,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과 라오스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 이란외무상,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부의장, 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 캄보쟈 국회의장, 부수상 겸 내무상, 공보상, 프놈뻰시 시장,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보내여온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과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 각계 인사들이 우리 나라 대사관, 대표부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8일 중국 심양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일군들, 재중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최은복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난 67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이 미제와의 장기적인 대결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오늘 조국의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이적인 현실은 자기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공화국정권의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정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재중동포들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주시였다고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어 재중동포들이 애국사업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내세워주고계신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5일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김칠성위원장을 비롯한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후 67년간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를 감회깊게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것이라고 하면서 지구상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오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이어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동포들의 조국방문인상발표가 있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아래 수도 평양을 비롯한 조국의 모습이 놀랍게 변모되였으며 인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외부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조국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해외동포들 뜻깊게 경축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 방글라데슈, 쓰르비아, 베닌에서 7일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쁘바에브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을 해방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창건후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면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여 올수 있었다.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조선인민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엠. 잠룰 후다를 비롯한 인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여 인민대중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 바뜨리츠 미요비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국가의 탄생을 알린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드시 강성국가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게 한다.

우리 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을 축원한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인 꼬또누기자대학 학장 빠스깔 준체메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인 인덕정치를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해나가시였다.

김일성주석을 떠나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치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국가건설령도업적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인사들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먄마인사가 1일과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도전과 온갖 시련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먄마 미트 타르모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장을 새기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통일단결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건설하시였다.

또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인민이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북인권법》조작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의 여야당이 《북인권법안》의 조항들을 기본상 합의하였다고 떠들면서 이를 《국회》에서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난 10년이상 국회에 계류되여있던 〈북인권법〉의 국회통과가 가능하게 되였다.》고 떠드는가 하면 야당은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니, 《북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니 뭐니 하면서 너절한 야합행위에 대해 구구히 변명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여야당과 반통일보수세력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정치적도발로, 공공연한 체제대결선언으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온 겨레는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가 대화와 협력, 평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더우기 지금은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일정에 오르고 북남당국사이의 회담도 앞두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을 격화시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되돌려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국회》가 《북인권법》조작소동에 광분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인민의 지상락원인 우리 공화국에는 적대세력들이 떠들어대는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을 제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남조선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런데 모처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지금 남조선《국회》가 대결적인 모략악법인 《북인권법》을 다시 내들고 통과시키려고 발광하는것은 체질적이고 병적인 동족대결흉심의 발로로서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북남합의로 고조되고있는 대화와 관계개선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위로 반대배격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더우기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국회》가 대결적인 《북인권법》을 떠들어대는 그 입으로 그 무슨 《남북국회회담》을 운운하고있는것이다.

대화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그 무슨 《합의리행》과 《관계개선》, 《대화》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겉과 속이 다른자들의 치졸한 여론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표리부동한 시정배들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남조선의 정객들이 리성이 있다면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주제넘은 입방아질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세계최악의 인권페허지대인 제 집안꼴이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극악한 인권의 불모지이다.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종북》, 《리적》으로 몰려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인권과 민주의 무덤도 바로 남조선이고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며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세계최고를 기록하고있는 인간생지옥도 남조선이며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무참히 수장되는 대참사도 모자라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까지 야수적으로 탄압당하는 전대미문의 인권페허지대도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여의도에 들고앉은 정객들은 이에는 아랑곳없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합리화하고 극소수의 특권족속들과 재벌들을 위한 법아닌 《법》들을 조작해내면서 온갖 부정부패행위만을 일삼고있다.

남조선에 그 무슨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 할바는 하지 않고 인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민족분렬에 기생하며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데만 몰두하다나니 오늘 남조선이 인권유린에서 세계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조작책동과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 드는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단호한 립장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없다.

남조선의 여야당과 당국자들은 《북인권법》조작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104(2015)년 9월 16일
평 양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결성 20돐 기념모임 진행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결성 20돐 기념모임이 5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부의장, 오민학 경제국장, 김태룡 청상회결성 20돐기념 사업실행위원회 위원장, 림영철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회장, 력대 청상회 회장들, 각지 청상회 역원들과 회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허종만의장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는 청상회는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30대 동포청년들의 조직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뜨거운 믿음과 사랑에 대해 언급하였다.

청상회가 결성이후 20년동안 애족애국운동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청상회의 활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비약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태룡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그는 청상회가 동포사회의 새 모습을 창조하기 위한 활동을 벌릴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꾸려진 활력있는 조직으로 강화되였다고 밝혔다.

청상회는 결성 20돐을 계기로 《유족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꽃봉오리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등의 구호를 들고 애족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힘있는 청년단체, 동포청년들의 권리와 리익을 도모하는 경제단체로서 종합적면모를 갖추고 애족애국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어 림영철회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그는 애족애국운동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청상회활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 자랑찬 자욱을 새겨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 앞서 록화편집물 《청상회 20년간의 로정》이 상영되였다.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방글라데슈공산당의 주최로 8일 다카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위원장 무자히둘 이슬람 쎌림, 총비서 씨에드 아부자파르 아흐메드를 비롯한 방글라데슈공산당 지도부성원들과 각계층 군중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서와 현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

이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련대성전문이 채택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공산당과 방글라데슈의 혁명적인민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전쟁연습과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가 한시도 안정되지 못하고 최근에는 남조선당국의 련이은 도발책동으로 전쟁접경의 위험한 사태가 조성된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해마다 벌리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와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시급히 철회하고 해마다 벌리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촉구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제도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자위적조치를 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낸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를 존중하고 그 리행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

필리핀의 로조단체인 5.1절운동의 주최로 얼마전에 진행된 필리핀5.1절운동대회가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조선의 통일과 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쟁책동을 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북과 남으로 갈라놓았으며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후에도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계속 주둔시키고있다.

미국은 민족적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에서의 단합을 바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우리는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외세의 간섭과 침략전쟁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하며 단합하여 평화롭게 살려는 조선로동자들과 인민의 념원을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와 조선의 통일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공고하고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또한 자주적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서뿌르고 위험한 〈통일론의〉발언》

남조선신문이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8일 《서뿌르고 위험한 〈통일론의〉발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남조선집권자의 통일정책을 비난하였다.

사설은 남북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것은 그릇된 방향설정과 독단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그러나 집권자가 해외를 행각하여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론의를 시작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였다.

이 망언은 통일론의의 핵심당사자가 북이 아닌 다른 나라가 되는것이라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통일론의를 당사자인 북이 아니라 외세와 하려는것은 위험한것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집권자의 발언이 《흡수통일》에 대한 협력을 겨냥한것이라면 더 위험하다.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급변사태》 등에 따른 《붕괴》를 기대하고있음을 선언하는것이기때문이다.

《북붕괴론》이 평화통일과 모순됨은 물론이다.

도이췰란드식통일은 전례가 되지 못한다.

당국자가 무슨 뜻으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이 집권자의 망언대로 굳어진다면 북을 비롯한 주변관련국과의 관계에서 혼란만 커질뿐이다.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와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 각지에서 생존권쟁취를 위한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광범히 전개되고있다.

현대중공업로조는 회사측의 임금동결책동에 맞서 직장을 폐쇄하는 한편 8월 26일과 9월 4일에 이어 9일에도 파업을 벌렸다.

로조는 17일까지 파업을 계속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회사측의 반로동정책에 항거하여 전국조선업종로조련대소속 로조들이 현대중공업로조의 파업에 합세하였다.

금속로조 현대자동차로조는 회사측이 《정부》의 로동개혁에 힘을 얻어 로동자들의 생존권요구를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금속로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 파업을 벌릴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문 《오마이뉴스》는 최근 당국의 부당한 로동정책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는데 대해 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심각하게 반성할대신 재벌들을 적극 비호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146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